



평화를 이루자!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 5, 9)



예수님께서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신 다음, “참 행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복된 사람”, 바로 기쁨이 가득한 이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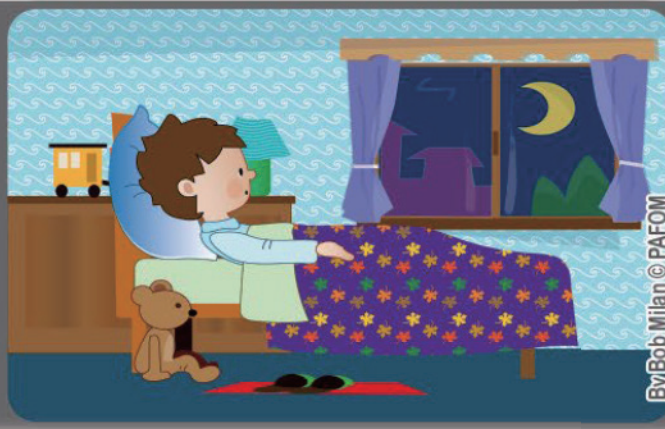
예수님은 또한 분열을 일으키는 이기심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고, 마음을 쏟아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설교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형제애를 다시 가져오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우리가 평화를 이룬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을 거예요.



아르헨티나에 사는 바오로의 경험담이에요.
하루는 누나와 다투었어요.



그날 밤, 누나와 다툰 일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지만, 아직 글을 쓰지 못해 어찌할지 고민하던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 대신 편지를 써 달라고 부탁 드렸어요. 편지에는 “누나, 미안해, 용서해 줘. 나도 누나를 용서할게. 그리고 난 누나를 사랑해”라고 썼어요.